

[일본연수기]

-일본 로펌 바스코 다가마에서의 연수 후기-
가슴 설레는 내일을 고대하며

허 중 혁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우등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전공 수료
- 김앤장심화실무수습

로스쿨에 온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나려 하는 올해 5월 어느 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김앤장의 구** 차장입니다. 허중혁 원생께서는 저희 김앤장이 실시하는 하계 심화실무수습에 선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요?” 어떨떨한 나머지 튀어 나온 내 답변에, “네, 그렇습니다. 채용에 유리한 수습이며 보수도 지급됩니다. 참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졌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참가를 수락했다. 기쁜 와중에 내 머리 속에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로스쿨로 전향한 과정에서 겪었던 힘들었던 일들과 작년의 숨가빔던 로스쿨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왔던 일본 로펌에서의 실무수습이 오버랩되고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이도 적지 않고 사법시험만 준비해 왔던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 이유는 일본 로펌에서의 연수 경험과 일본 소송기록을 볼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한 달 동안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심화실무수습을 거치면서 또 한 번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내 삶을 가장 많이 변화시켜 준 일본 로펌에서의 연수에 관한 모든 것을 적어 보고자 한다. 이젠 6개월이 지난 과거이지만, 일본에서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재미있고 행복한 기억으로 나에게 남아 있다.

나에겐 첫 로펌실무수습지, 바스코 다 가마 로펌

다른 로스쿨생들이 세종이나 태평양 등으로 실무수습을 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필자는 국내 로펌이 아닌 일본 로펌에서 첫 실무수습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필자가 실무수습을 받으러 간 곳은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로펌인 ‘바스코 다 가마’였다. ‘바스코 다 가마’는 지난 2008년 변호사 6명이 뜻을 모아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로펌으로, 로펌 명은 유명한 포르투갈의 탐험가 이름을 따다. 희망봉을 돌아 신세계로 나아가겠다는 탐험가의 진취적 기상을 따라, 법률 시장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한다. (<http://www.vascodagama.jp/>)

이 로펌은 지난해 이미 와 본 적이 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 연수를 실시했는데, 당시 이곳을 비롯해 일본 최고재판소와 동경지방법관소, 자매 로스쿨인 일본 주오대(中央大) 로스쿨, 구 법무성 등을 방문했다.

‘바스코 다 가마’는 우리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방학 기간 동안 로스쿨 원생이 일본에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로스쿨 1기생인 필자는 감사하게도 첫 일본 실무수습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러한 실무 수습은 2기생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첫날, 2월 10일 하네다 공항에 도착, 아카사카로 향하다

일본 도쿄를 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김포공항에서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방법이다. 이번 연수를 위해 동경으로 갈 때는 다행히 김포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표가 있었다. 김포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는데 이번에 이용하게 된 항공사가 ANA(전일본공수)여서 그런지 비행기 안에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더 많은 것 같았다. 기내식을 먹고 조금 있으니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다. 역시 2시간 정도 밖에 안 걸리는 짧은 거리, 정말 말처럼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다. 하네다 공항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하마마츠쵸로 간 다음, 거기서 신바시로 가는 JR 야마노테선으로 갈아 탔다. 두 번째로 와 보는 일본 도쿄였지만, 역시 간만에 보는 건물들과 거리는 낯선 느낌이었고 사람들은 서울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2주간을 일본말만 들으면서 일본인들과 같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감과 두려움도 느껴졌다.

처음 타 보는 모노레일...모노레일 자체도 신기했지만 내부의 좌석도 정말 편하고 널찍했다. 놀란 점은, 모노레일이 동경의 건물을 지나칠 때 심지어 건물과 1미터도 안 되는 간격으로 접근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 아파트 사람들은 자기 방에서 바로 옆으로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은 지하철 환승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해서, 하마마쓰 초에서도 단 한 역을 가기 위해 130엔을 추가로 써야 했다. 일본의 지하철은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 표시도 부족하고 노선이 워낙 복잡하고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 다행히 작년 여름 연수 때에 한 번 경험해 보았고 이번에는 한글 노선도도 준비해 가서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다.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내려가는 모습은 나 혼자 뿐.. 일본인들이 몹시 붐비는데 끄꿍 대면서 지하철을 탔고 신바시로 갔다. 카타오카 변호사님 말씀대로 신바시에선 택시 요금으로 800엔만 내고 다메이케 산노역 부근의 로펌에 도착했다.

작년에 들렀던 그 건물 그대로이다. 입구에서 인터폰으로 “서울 중앙대 로스쿨에서 온 허입니다”라고 말했다니 “하이, 아게마스(네, 열립니다)”하면서 문이 열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 갔더니, 많은 일본인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사람마다 명함을 주면서 인사를 하고 “오네가이시마스(잘 부탁드립니다)”만 스무 번은 한 것 같다. 그리고 그분들에겐 죄송했지만, 도저히 일본사람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었고 내 명함을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다. 로펌의 여직원 분들도 너무 친절했다.

짐을 가지고 아카사카(赤坂) 요코 호텔까지 가는 과정은 너무 힘들고 추웠다. 왜냐하면 길을 잘 모르는데, 로펌 직원인 일본 아가씨들이 출력해 준 아카사카 부근 지도는 너무 형식적이고 일본어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찾기 어려웠다. 우리의 지리 표시와 다르게, 일본에서는 우리의 ‘번지’라는 표현 대신에 ‘丁目(초메)’을 사용한다. 지나가는 분들에게 묻고 물어서 간신히 찾아 간 호텔은 역시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고 직원들도 매우 친절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비즈니스 호텔 가격이 이리도 비싸다니, 역시 도쿄의 물가는 살인적임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로펌으로 후다닥 걸어가는데 이번엔 호텔에서 준 지도대로 가니 아주 단 시간에 로펌을 찾을 수 있었다. 아카사카는 일본 국회가 근처에 있고(국회의사당

앞역이란 지하철역도 있다) 굉장히 고급스런 술집과 쇼펍거리로 유명한 곳이어서 역시 도심지다운 면모였다. 시부야가 우리의 신촌이고 오모테산도가 우리의 청담동이라면, 아카사카는 우리의 여의도라 보면 적당하다.

일본 변호사 분들과 비서분들 7분과 같이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선, 나 혼자만이 한국인이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다지도 일본 음식이 맛있는 줄은 몰랐다(이후에도 필자는 일본의 엄청난 음식 맛에 여러 번 감동을 받았고, 비슷한 종류의 음식을 한국에 와서 찾아 보았지만 아직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있다). 의외로 일본에도 내가 즐기는 곱창전골이 있었는데 이름은 모즈나베라 한다. 일본의 곱창전골은 한국처럼 맵지 않고 매우 담백했다. 그리고 가히 천상의 맛이라 할 수 있는 스키. 일본인들은 참치라 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구경하기 힘든 참다랑어(훈마구로)를 위주로 먹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디저트가 아주 특이했는데, 이른 바 와사비 아이스크림이었다. 정말 와사비 맛의 화한 느낌이었는데 이런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게 행운이었다. 일본의 살인적인 물가에도 불구하고 일본 변호사님들은 저녁식사와 술로 많은 돈을 쓰신 것 같다. 아직 로스쿨생에 불과한 나에게 이렇게까지 환대를 하는 것에 매우 감사했으나 부담도 되었다. 나중에 한국에 이 분들이 오면, 나도 이 정도의 대접을 해 드려야 하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다. 술자리가 파하고 늦게 돌아 온 호텔에서 처음 만져 보는 일본의 컴퓨터 자판은 우리 것과 조금 달랐다. 다만 일본어를 치는 것은 한국에서보다 편하게 되어 있었고, 인터넷은 역시 한국보다 약간 느리다.

둘째 날, 비오는 일본의 건국기념일

다음날은 일본의 건국기념일이라서 공휴일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올 때는 전혀 몰랐는데 바로 출근하지 않고 쉬니까 좋았다.

방 정리를 좀 하고 일본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일본은 동계 올림픽에서의 아사다 마오의 선전을 기원하느라 난리법석이다. 심지어 하토야마 총리까지 방송에 나와서 “우리의 마오 상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이번엔 김연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거리도 온통 아사다 마오의 플랭카드와 함께 그녀의 금메달을 염원하는 기운이 가득했다.

비가 조금씩 내리지만, 슬슬 걸어가면서 아카사카 거리를 둘러 보았다. 비즈니스 센터로 유명한 아카사카 사카스에서 화려한 조명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가타오카 변호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의를 하신다. 가타

오카 변호사님의 사모님은 한국인이시다. 그래서 그토록 한국어를 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한국대사관이 있고 한국인이 신주쿠만큐이나 많은 동네인 아자부주반의 야키니쿠(고기구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아카사카나 긴자만 부촌이고 고급거리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아자부주반도 매우 고급거리라 하셨다. 아자부주반에는 일본의 연예인들도 많이 산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배우인 마쓰다카코 상이 그토록 담배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다.

정말 음식문화만큼은 우리보다 일본이 한 차원 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 이렇게 고기구운 것이 맛있을 수 있나 싶었다. 다만 우리 음식이 훨씬 맛있는 것이 있다면, 일본에서 먹는 냉면은 한국 냉면보다 훨씬 못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었다(나중에 경험한 바로, 일본의 라멘과 냉면은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사모님은 매우 늘씬한 미인이셨는데 간단에 한국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으셨는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길 나눌 수 있었다. 사모님과 변호사님이 만나게 된 것은 변호사님이 태평양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이었다는데, 들려 주신 결혼의 사연도 재미있었다.

일본 동경의 겨울 기후는 여름만큼 습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다음날부터 정식 출근이었는데, 내가 하기에 따라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다.

2월12일...드디어 첫 출근!

처음으로 벡타이를 하고 완전 정장 차림으로 밖에 나갔는데 아직도 쌀쌀하다. 그래서 코트를 다시 걸쳤다. 한국에서 기현이가 보내 온 소식에 의하면, 서울에는 폭설이 왔다고 하는데 동경은 그보다는 따뜻했다. 그런데도 일본 변호사 분들은 예전보다 너무 춥다고 난리법석이시고, 서울은 더 춥다고 말씀드리니까 한국에 가기 두렵다고들 하신다.

한국 로펌과 바스코 다 가마가 다른 점은, 로펌 안이 작지만 매우 깨끗하고 여직원 분들까지 지나치게 친절하다는 것이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가 보았던 한국의 로펌은 바빠서 정신이 없을 정도이고 외부인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곳은 통제가 심해서 외부인이 여간해선 들어오지 못 한다. 나도 출입할 때마다 1층에서 인 터폰을 누르고 허락받고 들어갈 수 있었다. 나중에 느낀 점은, 일본 사회는 매우 폐쇄적인 문화라는 것.

처음으로 카타오카 변호사님이 던져 주신 소송기록은 <꽃보다 남자-일본어로

하나요리당> 관련 저작권 사건이었다. 아직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은 -가타오카 변호사님께서 2월10일날 답변서를 쓰실 정도의- 따끈따끈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1심에서의 가처분결정 자체는 가타오카 변호사님이 소송대리인으로 있는 피고 측, 일본 SPO 측의 승소였다.

원고는 한국의 작곡가 분과 그로부터 위탁받은 저작권자인 사단법인 저작권협회이고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두우가 맡았다. 한국 법무법인이 하는 사건이니까 한글이다 싶어서 펼쳤는데, 3분의2는 일본어 그리고 한자 투성이었다. 그래도 읽는 것은 조금 되는 터인데도, 일한사건을 정말 여러 번 뒤적였고 증거자료는 처음 보는 표현이 많아서 힘들었다.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 측도 그 많은 소송관련 서류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보내는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 준비서면과 내용증명을 일일이 일본어로 번역해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SPO측의 사쿠라이 양이 제출한 서류에서 도저히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 몇 가지를 가타오카 변호사님께 여쭙어 보았는데, 답변 후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이 없으며 퇴근은 5시30분 이후에 자율이라 하신다. 하지만 나중에 토요일에 들러 본 사무실에는 일하는 변호사 분들이 항상 계셨다.

점심 식사는 첫날부터 비슷한 정서 때문에 친해진 오자키 소이치로 변호사와 같이 편의점의 벤또(도시락)로 해결했는데, 아카사카 부근의 물가는 일본 전체에서도 제일 비싼 수준이어서 싼 가격에 저녁을 먹기 위해선 돌아다니면서 보는 수밖에 없었다. 아카사카에서 조금만 걸으면 유흥가로 유명한 룩본기가 나온다. 그래서 10분 정도 걸으니 깨끗한 건물들이 나오고 육교를 지나서 보이는 곳이 바로 도쿄 미드타운이었다. 음악소리가 울리면서 화려한 조명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 정말 조명의 장관이 거대한 건물들과 어울려서 아름다웠다. 도쿄 미드타운을 지나서 더 걸으니, 작년에도 지나간 바 있는 룩본기가 보였고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보였다.

이번에 참고하려고 가져 간 도쿄 100배 즐기기 기본서에는 모리타워부터 가라고 해서, 주변을 둘러 보니 바로 거대한 모리 타워가 보였다. 우리의 코엑스 빌딩 주변과 유사하다 싶은 느낌. 그러나 돈을 엄청나게 투자한 곳임을 절감했다. 모리타워에는 고급 쇼핑몰들이 즐비한데, 한눈에 보기에 상류층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패션잡화를 고르느라 분주한 모습들이었다.

그날까지 3일째였는데도, 작년 여름에도 왔었던 까닭에 지하철을 타도 헤매지도 않고 동경이 낯설지가 않다. 확실히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작년에는 정말

낮설었던 도쿄가 서울만큼 친숙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라 다행이었다. 다만 구정을 서울이 아닌 도쿄에서 혼자 쇠어야 하는 것이 조금 아쉬울 뿐이었다.

2월15일 임차료 증감청구의 현장에 입회하다!

일본에선 100볼트 전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 들고 간 트랜스를 사무실로 가져 가서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노트북은 잘 돌아가는데, 아무리 애써 봐도 인터넷 무선 연결이 안 된다. 일본인들이 도와 주어도 안 된다. 일본 분들은 아마도 한국 노트북의 방식과 일본 로펌 건물의 무선방식이 뭔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들을 하시는데, 나중에 귀국하고 나서 우리 로스쿨 교수님들께 이 이야길 말씀드렸더니, 함영주 교수님께서 “그래서 외국 나갈 때는 공유기를 꼭 가져가야 한다”고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다.

그냥 아래한글 워드나 치면서 소송기록을 정리해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다. 무료버전 사용기간이 끝난 이유로 해서 내 노트북에 저장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작동이 안 되는데다가, 일본 사람들은 한글 프로그램을 알지도 못 하고 아예 안 쓴다는 것이다. 소송기록을 두 건이나 힘들게 정리해 놓았는데 참 난감했다. 일단 카타오카 변호사께서 태평양 이후동 변호사님-한국 변호사 중 가장 일본어에 능통하고 일본에 지인이 많은 유명한 분이심-이 자신에게 선물하셨다는 태평양 로펌의 이름이 적힌 USB를 빌려 주셨다. 그걸로 저장하고 옮기는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점심식사 때에 여직원 분들이 모두 오셔서 남자들에게 발렌타인 데이라고 초콜렛 선물을 주셨다. 나에게도 주시길래 너무 감사하다고 답을 했는데, 열어 보니 정말 비싼 것이었다. 차마 먹을 수 없어 그대로 가방에 넣었다. Mon Loire 것인데 너무 예뻐다. 작은 떡 같은 것들이 세 종류로 배열되어 있고 안에는 초콜렛이 들어 있는데 반짝반짝 윤기가 돌고 짝어 먹게 되어 있다. 한국에도 발렌타인 데이 행사가 있냐고 다들 물어 보길래, 한국에도 당연히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일본이 그 행사를 더 열심히 챙기는 것 같았다. 어제 신주쿠 근처의 백화점들도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초콜렛 선물을 사는 여성들이 만원이었고 그 가격도 정말 비쌌다.

일본인들은 점심 때는 여간해선 비싼 음식을 먹지 않는다. 시간도 없고 물가도 비싼 반면에, 벤또도 맛이나 영양가가 좋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먹다 보니, 일본의 벤또 문화에 익숙해졌다. 바스코 다 가마 로펌 4층, 작년에 우리가 강의 들었

던 회의실, 그곳이 일본 변호사 분들의 점심 식사 장소였다. 연봉 많은 변호사 분들도 모두 편의점에서 사 온 벤토를 들고 사무실 여직원들이 제공하는 커피와 오차-우리의 녹차-를 큼지막한 글래스에 담아서 환담을 나누며 식사를 한다. 항상 남자 변호사 분들만 식사를 같이하는 분위기인데 나는 이래저래 한국에 대한 질문의 대상이 되어서 중간에 끼어서 잘 먹긴 했지만, 한국의 분위기와 조금 달랐다. 일본인들은 낮에는 이렇게 벤토로 간단히 때우고 저녁 6시 이후에 먹는 식사는 정말 잘 먹는 것 같다. 일본의 음식문화도 매우 발달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술과 차의 문화인 것 같다. 맥주를 비롯한 술의 종류도 무척 다양하고 가게들 중에는 고유의 독자적인 맥주를 제공하는 곳도 많다. 그냥 물을 마시기보다는 녹차 등의 차를 마시는 문화로 인해서, 저렴한 음식점에서도 항상 식탁 위에 차를 제공한다.

점심식사가 끝난 후, 오전부터 보던 고이비또(연인) 사건 기록을 계속 보았다. 윤손화와 유오성이 출연했던 에스비에스 드라마..그 드라마의 원작은 알고 보니 일본 작가 노자와 쇼우사쿠-한자가 어려워져 정말 힘들게 사전 찾아 뒤졌다-의 것이었는데, 그 유명작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노자와 오피스에서 한국드라마를 일본에 공급하는 CJ 미디어 재팬을 상대로 이의제기한 사건이었다. 노자와 측의 변호사가 CJ 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고서를 보내 온 것에 대하여, CJ측 소송대리인인 카타오카 변호사님이 어떻게든 손해배상액을 줄여 보시려고 화해를 시도하는 중이라 하신다. 아직 본격적으로 소가 제기되지도 않은 현재 사안이었다.

1시45분에 카타오카 변호사님을 따라서 아카사카 미즈케 역 근처의 한국음식점이 많은 술집거리로 갔다. 일본의 특이한 문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료 증액을 요구하려면 건물에 방문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다시 견적을 낸다는 것이다. 그 현장에는 양측의 변호인이 입회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계약서를 수정하는데, 이러한 입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가 보았더니, 양측 인사들이 여러 명씩 많이도 나왔다. 건물 안은 쇼와 10년부터 대를 이어 내려 온 유명한 장어구이 집이었는데, 종업원부터 시작해서 사장까지 나오고 음식점 구석구석과 심지어 화장실까지 둘러보면서 견적을 내고 서로 지적을 한다. 임대인 측에선 올리려 하고 임차인 측에선 내리려 하는, 이른바 서로 구실을 찾는 셈인데 양측 변호사가 따라 다니면서 적는다. 너무 빠르고 전문적인 일본어로 말들을 해 대니까, 다 알아 듣는다는 것은 무리였다.

여기서도 일본인들의 대를 이은 장인 정신이 느껴졌다. 장어구이 하나에도 한 집안이 한 장소에서 80년이 넘도록 이어오고 있다. 자신들의 음식에 무한자부심을 가진 것 같은 말투. 마치 고시합격자 저리 가라는 자부심이 음식점 사람들에게 배어 있다.

일본어로 인사를 하는데, 혹시 한국사람이냐고 묻는 분이 계신다. 임대인인 회사 측의 대리인으로 나온 분이 한국인이셨는데 내 억양이나 발음이 한국인 같아서 물어 보셨다 하신다. 일본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 하셔서 얼마나 하셨냐 여쭙었더니 일본에 와서 산 지가 이제 20년이 조금 넘었다고 하신다. 한국인과 일본에서 대화하는 시간은 정말 짧았지만, 그래도 정말 반가웠다.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 왔다.

2월16일, 전 복싱선수의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관술 준비에 참관하다!

비가 오던 날씨가 아침엔 조금 그치나 했는데, 오후부터 또 다시 비가 내리는 스산한 도쿄의 날씨였다. 아침부터 재판 준비를 참관할 일이 있어 카타오카 변호사님 앞에 앉아 기다렸다. 정말 일이 바쁘신 듯 해서 한참을 기다렸다. 카타오카 변호사님을 따라 4층 소회의실로 가서 뵙게 된 분은 전 복싱선수 출신으로 현재 일본 복싱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유명인이시라는데, 이 분의 BMW승용차가 사고로 파손되었기 때문에 제기된 소송 때문에 뵙게 된 것이었다. 역시 고급차라서 그런지 파손액수가 무려 300만엔이 넘었다. 과실 정도를 감안해서 청구금액이 263만엔이었다. 이분이 원고이고 그 소송대리를 카타오카 변호사께서 하신 것인데 승용차를 들이받은 화물차의 운전기사에 대해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화물차 소속회사에 대해서 사용자책임을 묻는 1차소송이 있는 것이었다. 일본에도 우리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존재하고 있었다. 카타오카 변호사님이 검색해서 보여 주시는데, 일본 자배법은 우리와 적용범위가 조금 다를 뿐이었다. 내가 본 사안이 한국에서 발생했더라도 물적 손해이므로 자배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될 뿐이고, 일본에선 강제보험의 경우가 아니면 자배법은 애초에 적용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 측인 **운수주식회사는 오히려 원고의 차선변경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반소를 청구해 온 것이었다. 회사 차량의 휴업손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되자, 관할법원인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결정을 통해서 두 소송을 병합했다. 병합사건이라 소송기록도 엄청 두꺼웠다. 필자가 참관하게 된 것은, 재판에 임박해서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대한 준비로 카타오

카 변호사님과 원고 당사자가 하는 리허설이었다. 카타오카 변호사님께서 예상되는 질문을 하시면, 준비된 내용대로 기타자와 써가 답변을 하는 식이었다. 카타오카 변호사님이 주신문보다는 상당부분을 반대신문에 주력하시는 이유로, 진행이 매우 빨랐다. 짧은 일본어 실력 때문에 알아 듣지 못 하는 상황을 걱정했으나, 다행히 와타나베 양이 신문 내용을 미리 출력해 주어서 두 분이 일어를 주고 받으면서 소송기록이 넘어가는 동안, 나는 신문 내용을 일본 글로 보면서 들을 수 있었다. 신문 내용을 글로만 보아도, 카타오카 변호사님과 와타나베 비서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말로만 진행된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오전 10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12시가 넘어야야 끝이 났다. 중간에 졸려서 혼이 났지만 화장실도 못 가고 예의상 앉아서 열심히 들으면서 따라 갔더니 그래도 사실관계 파악이 되는 듯 했다.

다 끝나고 원고 분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가시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까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변호사님. 클라이언트의 철저한 심복 노릇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인간적인 위안과 조언까지 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다.

오후에는 카타오카 변호사님께서 법정에 나가셔야 해서, 나 혼자 2층 자리에서 아까 보았던 소송기록을 더 읽었다. 일본의 결정문이나 준비서면을 보면 한국에는 없는 한자표현이 참 많이 나온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자기 회사를 당사, 다른 회사를 귀사, 이런 식으로 쓰기는 한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표현도 쓸뿐더러 변호사 자신을 당직-일본어로 또우쇼쿠-이라 쓰고, 상대방 변호사를 귀직이라 쓴다. 낯선 고어적 표현인데 모든 소송기록에서 늘 반복된다. 질문을 드렸더니, 오히려 “그럼 한국에선 변호사 자신을 뭐라 하나”고 반문이 돌아온다. 그러므로 “당직은 귀직에게 기한 전까지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소송기록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의외로 그냥 쓰는 표현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풀 초(草) 한자를 일본에선 ‘쿠사’라 읽는데, 소송서류에서 끝날 때 늘상 자주 쿠사쿠사, 이렇게 두 개의 풀 초 자가 써져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뜻을 몰라서 또 엄치를 무릅쓰고 질문을 했는데, ‘소우소우’라 읽는 것이었다. 우리 말에는 쓰지 않는 표현이었는데, 그냥 별 뜻 없이 참고로 하란 의미라 한다.

일본인들이 전문적으로 쓰는 한자 읽기가 정말 어렵다. 한자를 보면 대충 소송기록의 뜻은 들어 오지만, 그걸 말로 하라고 할 때 한자의 발음이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인들은 초중고 시절에 수천자의 한자를 쓰도록 연마가 되어서인지 같은 한자의 발음이 제각각인데도 참 귀신같이 발음을 제대로 해 낸다. 특히 오랜 음식점 간판의 그 어려운 한자, 심지어 고어로 된 한자조차도 턱 보면 바로

발음을 해 대는데, 그 한자가 용례마다 발음이 다 달라지는데도 너무나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어학 공부는 아무리 해도-물론 난 별로 한 것도 아니지만-원어민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 작년엔 지하철에서 역과 안내를 표기한 한자가 어려웠는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이젠 가게 간판의 한자들이 괴롭히기 시작한다.

2월17일, 가와사키 법원에서 재판을 관람!

일주일쯤 바스코 다 가마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일본인들은 매우 체계적이다. 뭔가 다 이유가 있다. 처음엔 일본 지하철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시고생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노선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란 것을 느끼게 된다. 특히 JR 노선은 우리의 2호선과 비슷한데 우리 2호선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지도 않아서 편하게 갈 수 있다. 촘촘히 이어진 다른 노선들이 승객을 적절히 분산해 주기 때문이며, 다니다 보면 노선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란 것을 느낀다. 우리의 서울대 입구 역처럼 역을 나와서 서울대를 그냥 못 가는 경우란 없다. 그 역만 가면 그 역과 관련된 곳을 찾기가 너무 편하다. 우리의 지하철은 버스를 보조하는 형국이지만, 일본은 지하철이 모든 교통의 중심이고 버스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지하철비는 비싸지만 그에도 이유가 있었다. 개찰구마다 역무원이 다 붙어 있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안내를 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역무원을 줄이는 분위기가 아니라, 일본은 철저히 역마다 안내를 위한 역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당연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역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문제는 환승에 있어 돈을 더 내야 하는 것, 이걸 나로서도 불만이고 도쿄 메트로와 도에이센은 제발 합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카타오카 변호사님도 완전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분이다. 어제 두 시간 가까이 신문 내용을 듣게 한 이유가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니 재미있는 사건을 주신다. 간지 황, 간지 황 그래서 누군가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국의 유명 텔런트 분이셨다. 일본인들은 발음이 안 되어서 간지 황이라 하는 것 같은데, 여직원들은 '간지나는 황'씨라 이해하는 듯 했다. 일본인들은 광적인 팬클럽을 조직해서 관리하는 특성이 있는데 연예인 팬클럽에 가입하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그 텔런트의 팬클럽을 운영하는 것도 소니 자회사인 사업체가 하고 있고, 그 사업체가 제3채무자가 되어 있는 소송이었다. 그런데 그걸 미처 다 보기도 전에 12시 정도까지 따라 오라고 하신다. 가와사키 법원에 가자고 하시는 거다. 신마시 역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신마

시 역에서 가와사키 시로 나가는 도카이 선을 탔다. 전철이 아니라 기차였다. 기차 안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특실로 들어갔다. 재판 시간 때문에 부득이 차안에서 벤토로 해결해야 했다. 15분 정도 도카이 선을 타고 달려서 가와사키 시에 도착했다. 오토바이로 유명한 도시이며 우리의 분당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하신다. 우리의 부산이 오오사카라면 인천이 요코하마고, 가와사키 재판소는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의 관할하에 있다.

얼마 전 로스쿨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때문에 갔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 본 가와사키 재판소는 매우 아담하고 작았다. 법원 정문 앞에서 사람들이 대 놓고 담배를 핀다.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담배를 피울 수 없는 도쿄에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 수위 아저씨한테 물어 보니까, 동경 시내에서만 담배 피는 것이 제한을 받을 뿐이라 한다.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가와사키 지부(정식명칭)에 들어갔더니, 어제 보았던 전직 복싱선수이신 원고 분께서 와 있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농담을 주고 받다가 우연히 한국의 홍수환 선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분도 홍수환 선수의 대단함을 인정하시는 것이었다.

작년 연수 때 보았던 도쿄 지방재판소의 법정보다는 작고 아담한 법정에 들어갔더니, 방청객은 나를 포함해서 단 두 명이였다. 왼쪽에는 원고와 카타오카 변호사님이 앉으시고, 오른쪽에는 상대방인 피고와 그쪽 변호사가 앉았다. 재판장님이 들어오시자 기립했고, 먼저 인정신문부터 시작되었다. 인정신문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기립한다.

그날 하는 것은 당사자본인신문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선서부터 해야 했다. 자못 엄숙한 분위기였다. 선서가 끝나고, 원고 당사자에 대한 카타오카 변호사님의 주신문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에 상대방의 반대신문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피고 당사자에 대한 주신문이 있었고 그 후에 카타오카 변호사님의 반대신문이 있었다. 신문에 소요된 시간만 2시간 이상이었다. 보통 때 같으면 알아듣지도 못 하고 졸릴 상황이었었는데, 카타오카 변호사님의 계획 하에 어제 꾸역꾸역 2시간 동안 신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보면서 두 분의 준비를 듣고 갔더니 희한하게도 재판 중의 신문 내용이 어느 정도 귀에 들어오는 것이어서 집중할 수가 있었다. 아쉬웠던 것은 -우리의 서울지방법원처럼 모니터라도 있으면 파일로 사진과 그림을 통해 교통사고 위치를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일본의 법정엔 아직 디지털화된 장비 자체가 없다는 점이였다. 그래서 변호사 두 분이 사진과 지도를 인쇄해 온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동안, 옆에서 법원 사무관이 일일이 체크를 하고 확인하는 식이어서 시

간도 더 걸리고 알아보기도 쉽지 않았다. 이런 점은 우리 법원이 더 선진화된 셈이다.

법정 견학을 이 정도로 제대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사실 법정 견학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느꼈다. 최소한 미리 재판 관련 서류를 읽게 하고, 그리고 나서 법정의 재판을 직접 봐야 절실하게 내용과 절차가 다가온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다(올해 7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법정견학 일정도 그와 동일해서, 매우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일본의 재판이라서 그 실제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귀한 경험이었다.

재판이 끝나면서 재판장이 다시 기일지정을 한다. 양측에 편한 시간을 물어 보면서 상당히 민주적으로 날짜를 정한다. 3월15일에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하는데 난 그때 서울에서 수업 들어야 하니 못 보게 되어 아쉬웠다. 다음 재판에는 보험회사-사안은 강제 보험이 아니라 임의 보험 사건이라 한다-의 조사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것이라 한다.

재판이 끝나고서도 카타오카 변호사님은 클라이언트인 원고와 한참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재판 계획을 짜신다. 그리고 헤어지면서도 구십도 각도로 숙여서 인사하는 철저한 변호사의 마인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 일본 변호사 분들은 어떤 우월감이나 엘리트 의식이 별로 없다. 내가 지금껏 들어왔던 우리 법조인들의 우월감 같은 것을, 아직까진 일본에서 찾아 보기가 힘들었다. 내 학부 동기 변호사들도 자부심 하나는 정말 지나칠 정도인데, 이곳에서 알게 된 변호사님들이나 작년 추석특강 때 학교에서 뵈던 타쿠야 야마자키 변호사님도 모두 우월감이 있기 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다른 사람한테 숙여서 문제이다. 나 같은 로스쿨생에게조차 그분들은 엄청나게 존대를 하려 하셨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도쿄 바스코 다가마 사무실로 돌아 오니, 거의 퇴근할 시간이 다 되어 버렸다. 또 다시 다른 사건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야 하는 변호사님들에게 인사를 올리고 퇴근을 해야 했다.

2월 18일 목요일, 일본인들이 정작 쓰지 않는 일본어

한동안 지내서 일본에 많이 익숙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아직도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힌다. 음식점에 앉아도 어눌하게 말하니까 바로 한국 메뉴판을 주어서 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내 발음이나 어투가 문제가 많은가 하는 창피함도 느끼게 된다. 나름 로펌 안에서 대충 소통을 하는데 밖에선 쉽지 않음을 느꼈다.

변명 같지만. 예전에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 현재의 일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본어와 핀트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일단 고등학교 시절 배운 용어들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 카타오카 변호사님이 모르신다. 동사 연용형에서 ‘해 주세요’ 하면 ㄷ가 붙어서 연탁이 일어나는 현상을 음편-일어로 운방-이라고 한국 학생들은 열심히 배우는데, 정작 일본인들은 그런 용어를 잘 모른다. 카타오카 변호사님이 인터넷 검색을 하고서 처음 발견하셨다고 하신다. 그리고 어떤 인사말은 내가 하니까 상당히 이상하게 본다. 한국에서 배운 일어의 뉘앙스가 엉망인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일어의 일정 부분은 상당히 오래 된,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라 하신다(최근 서울에서 일본인 여선생님께 회화를 배우고 있는데, 그분도 ‘히 상은 너무 어려운 말은 아는데 정작 쉬운 말을 몰라요’라고 하신다). 여기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것. 일본인들이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쓰는 문장은 딱 2가지다! 쓰미마생(한국어 해석은 미안합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저기요’의 의미로 쓴다). 무슨 질문을 하든, 먼저 올라가든, 책을 빌리든 주문을 하든, 무조건 쓰미마생이면 만사형통이다. 괜히 시쓰레이시마쓰(실례합니다) 하면 이상하게 본다. 한국에선 그게 영어의 익스큐즈 미의 의미로 배웠지만, 여기 분들은 시쓰레이시마쓰를 잘 안 쓴다. 무조건 쓰미마생이었다. 지하철에 앉아도 쓰미마생 소리를 안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즈카레스마(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갈 때, 그리고 점심먹을 때, 하루를 끝냈거나 일을 마쳤을 때, 무조건 ‘오즈카레스마데시다’였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오키겐요우’ 했더니 상당히 황당하게 쳐다 보는 여비서들. 나중에 물어 보니까, 그건 귀족들이나 스승이 아랫사람에게 가르치거나 시켜 놓고서 수고했다는 인사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인턴을 온 필자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이니, 외국인이 아니라면 크게 실례가 될 수 있는 표현이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아침에 인턴폰 누를 때도 아침인사 하기 전에 쓰미마생부터 외치고, 퇴근할 때는 오즈카레스마데시다 하고 나왔다. 일단 말은 무조건 카타오카 변호사님을 따라 하고 본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시켜도 쓰미마생,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도 쓰미마생, 전화받을 때는 중간중간에 나루호도, 점심 먹으러 갈 때도 그리고 여직원들 밥먹으러 갈 때도 오즈카레스마데시다, 이렇게만 했다.

그날은 카타오카 변호사님께서 무지하게 바쁘셨다. 오전부터 재판 나갔다가 식사도 못 하셔서 나 혼자 소바 뽕또를 먹었다. 스승이 바쁘시니까 할 것이 없어서 좋긴 하지만, 옆에서 보니까 매일 바쁘신 모습이 왠지 안스러웠다. 퇴근 때까지 어제 받은 소송 기록을 가압류와 가져분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나오는데, 법원 갔

다 오셔서 또 회의 중이시란다. 카타오카 변호사님 책상 위에 아래와 같은 편지를 남겨 드린 후, 와타나베 비서님께 인사 못 드리고 가서 죄송하단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나왔다.

전후가 바뀌었지만, 연예인 팬클럽 사건은 이래저래 한국과 일본 회사들이 얽혀 있지만 내용은 매우 간단하고 재미있는 것이었다. 일본여성들이 팬클럽 가입에 많은 돈을 내게 하고 돈을 들여 방한하는 코스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챙기는 일본회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 탤런트가 일본 공식 팬클럽 사인회에서 나오는 수입에서 정당한 배분을 못 받아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사실관계는 직무상 비밀이므로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이 한국 탤런트와 소속사 측의 소송대리에 바스코 다 가마의 가토 변호사, 카타오카 변호사, 오자키 변호사님이 모두 뛰어난 사건이었다. 그런데, 결론은 매우 의외였다. 바스코 다가마에서 한국 탤런트의 가처분신청을 취하해 버렸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여쭈어 보았는데, 상대방 측에서 우리 측의 요청대로 모두 이행해 버린 탓에 가처분신청을 취하게 된 것이었다. 일본 회사 측에서 우리 측의 요청대로 팬클럽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 운영을 중지함으로써 일단의 분란은 사라지게 되었다.

2월19일 금요일, 에비스 상표권 소송

오전부터 여전히 카타오카 변호사님은 무지하게 바쁘셨다. 소송기록 하나를 주시더니, 점심은 미안하지만 혼자 먹으라 하셔서, 벤또를 사려고 로손 편의점에 가려니 가토 변호사님이 먼저 줄을 서 계신다. 그래서 쪼로록 따라가서 4층 회의실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 회의실에서는 대형 소니 티비에서 피겨 스케이팅 중계를 하고 있다.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부초밥을 먹었다. 가토 기미히토 변호사님은 매우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시다. 가토 변호사님이 예전에 대리하신 선수가 바로 우에하라 투수이다. 와세다대 출신이고 일본 구 사법시험을 패스하신 인재이신데 미국 로스쿨까지 나오신 분이셨고, 작년에 우리 로스쿨 연수 때 영어로 강의해 주신 후덕한 얼굴의 신사 분이 바로 그분이셨다. 이토록 엘리트시고 바스코 다 가마의 얼굴이신데도 전혀 어렵지가 않았다. 항상 웃음 띤 얼굴과 편한 인상의 소탈한 성격이셨다. 한국 피겨 스케이팅에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축하해 주시면서,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대결에서 어떻게 될까를 물어 보신다. 참 대답하기 난감했다. 김연아가 이길 거라 해야 애국자이지만, 여기선 그런 말을 해도 될까 싶었다.

회기애한 점심시간이 끝나면 변호사 분들은 빨리 일자리로 돌아 가신다. 나도 아까 받은 소송기록을 보아야 했다. 그날 사건기록은 **서림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된 원소 및 반소가 다 존재하는 기록이었다. 일본인 사카모토 씨는 평생을 한국사 연구에 매진한 대가인데 그 연구를 위해 미국 워싱턴도서관까지 가서 북한 근대사 관련 자료를 보기 위해 수년을 흑인들 동네에서 빈민으로 살기까지 했던 대단한 사람으로, 오사카의 한 출판사가 출판한 북한 근대사의 극비사항에 관한 책에 대해 편집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이다. 그런데 일본의 **서림이란 출판사의 대표와 한국의 **서림의 대표는 형제지간인데, 한국**서림에서 북한근대사의 극비사항에 관한 원전과 동일한 내용을 출판해서 일본의 **서림이 이를 일본에서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 사카모토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 본소의 전말이다. 그런데 사카모토 씨가 오오사카의 일간신문에 **서림의 해적판 출판에 관해 기사를 게재하자, 명예 및 신용훼손을 이유로 하여 본소 피고인 **서림이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 및 사죄광고를 청구한 것이 반소 사안의 전말이었다. 이 사건도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에서는 우리와 달리 사죄광고가 위헌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사죄광고가 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만 보면 피고 **서림은 해적판을 발행해서 부당하게 돈을 번 악덕기업인 것 같은데, **서림 쪽은 원전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설령 저작권 침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했다는 항변을 한다. 그리고 반소까지 제기하는데, **서림 쪽을 소송대리한 분이 카타오카 변호사님과 다른 사무실의 에모리 변호사였다.

잠시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예의상 담배를 사무실 안에서 피지 않고 건물 밖으로 나와서 피곤 했는데, 변호사님들은 왜 사무실 안에서 안 피우느냐고 만류하시곤 했다- 카타오카 변호사님께서 나를 찾으셨다. 무슨 일인가 가 보니, 에비스 관련 상표소송의 판결문 검색을 부탁하시는 것이었다. 에비스는 원래 일본의 유명한 맥주 상표 이름이고 에비스 맥주 공장 때문에 그 지역 지하철 역 이름도 에비스라 하는데, 지하철 역의 한자도 에비스란 이름에 억지로 한자를 갖다 붙인 것으로 유명하다. 에비스 역도 동경의 매우 유명한 관광지이고 에비스란 상호가 이젠 맥주 뿐만 아니라 온갖 물건에 이름으로 많이 쓰일 정도이다.

내 노트북이 일본 무선랜과 맞지도 않고 특허법원 판결문을 지금 구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서, 우리 로스쿨 검색의 1인자 김석순 군에게 바로 전화를 날렸다.

역시 김석순 전 기자는 얼마 안 있어서, 이미 에비스 상표로 등록한 회사들이 모두 한국회사이고 오히려 일본회사는 등록거절당한 사실까지 알아내서는 판결문 등 소송관련서류 7개를 메일로 쏘아 준다. 그리고 카타오카 변호사님께서 특히 요청하셨던, 특허청에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까지 복사해서 카타오카 변호사님께 직접 날려 주는 센스까지...

이곳에는 상표법 관련 서적을 가져 오지 못 했지만, 바스코 다가마 도서관에는 사법연수원 교재도 있었다. 다만 너무 오래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한국에 돌아오면, 우리의 최신 법서를 학교 측에서 바스코 다가마에 기증하는 방안도 한 번 건의해 보아야 할 것 같았고 후에 건의를 드린 바 있다. 매년 연수를 가게 되거나 앞으로도 후배들이 인턴을 오는 등의 교류가 더 활발하게 되려면 굳이 다른 뭔가를 주기보다는, 이렇게 한국 판결에 관한 정보를 주거나 한국의 법학 자료와 서적, 특히 법고를 같은 것을 보내 주면 정말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2월22일 월요일

드디어 마지막 주, 서울로 가기 전에 도쿄에서 차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간 매일 우리 로스쿨 싸이클럽에 조금씩 글을 써 두느라 조금 힘들었다. 실은 그때 써 놓은 글들을 기초로 기억을 살려 장문의 수기를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써 놓은 글들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읽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싶기도 하다. 오랜 세월이 지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도 도쿄에서의 실무수습 시절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날도 아침 일찍 출근을 하면서 전날 우에노 시장의 야메요코초에서 샀던 초콜렛 선물셋트를 여비서 분들에게 드렸다. 별 것도 아닌데도 ‘스고이’와 ‘아리가또’를 연발하는 여자 분들의 목소리에 기분은 좋았다. 일본여성들의 발음은 정말 독특하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쓰는 말 자체가 많이 다른 곳이 일본이다. 그리고 발음의 억양도 여자 분들은 더 독특하다. 같은 아리가또나 스고이를 말할 때도, 여성 분들의 발음엔 감정이 실리면서 매우 간드러지는 느낌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신 카타오카 변호사님은 그날 오전에 재판소에 가야 하니 준비하라 하셨고 10시가 조금 넘어 출발했다. 변호사님을 따라 갔더니, 작년에 갔었던 구 범무성 건물이 보이고 바로 그 옆의 동경 지방재판소 건물이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은 소지품 검사를 받고 들어갈 수 있었다. 나의 경우에 카메라를

맡기고 들어가야만 했다.

그날은 정식재판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재판장이 기일을 지정하는 날이라 매우 빨리 끝났다. 변호사님께서 나에게 구경을 시켜 주시려 데려 오신 것이라 하시면서 일본 변호사 회관으로 안내하셨다. 일본 변호사 회관은 신식 건물이라 하기에는 애매했지만, 안에는 도서관과 식당이 잘 구비되어 있었고 -특히 일반서점이나 대형서점보다 더 많은- 가장 법학서적이 잘 구비되어 있다는 구내서점이 있었다. 그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사서 선물로 주신다. 가토 변호사님과 카타오카 변호사님께서 쓰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실무서식집이었다. 좋은 책을 선물받게 되어 기분은 좋았으나, 매번 이렇게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웠다.

사무실로 돌아 와서 조금 있다가 점심을 먹는데 그날은 벤포가 아닌 정식을 하자고 데리고 나가신다. 사무실 바로 근처에 있는 가게인데 유명한 가게인지라 역시 줄이 서 있어서 기다리면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번에 조사를 했던 에비스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에비스 상표에 관해 소송이 계속된 것이 있는지 조사를 부탁하신다. 지금 인터넷도 안 되고 있는 내가 의지할 곳은 역시 저번에 수고해 주었던 석순 군. 바로 김석순 전 기자에게 전화를 했고, 역시나 법정정보조사 학점에서 전체 탐인 석순 군은 조금 있다가 바로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서 소송계속된 사안이 없음을 메일로 보내 주었다. 나중에 카타오카 변호사님께서도 “역시 이 분은 최고의 정보 검색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하시면서 극찬을 하셨다.

오후에는 선물받은 책을 읽으면서 정리라도 할 겸 서문부터 번역을 조금 해 보았다. 그런데 일본인명은 너무 번역이 힘들다. 도대체가 몇 글자는 사전에도 안 나오고 요미가나를 읽을 수가 없다. 변호사님께 여쭙어 보았더니 몇 글자는 변호사님도 모르신다. 일본인들의 한자 이름은 지나치게 어렵다. 그래서 일본인들도 이름 옆에 요미가나를 표시해야 알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참 좋은 내용의 책인 것 같은데, 번역만 다 된다면 한국법에 적용시켜 조금만 수정한다면 충분히 한국에서도 좋은 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태평양 이훈동 변호사님과 그분 스태프진이 함께 번역 작업을 진행하신 적이 있으나, 우리 로스쿨에서 완성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도 물어 오신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교수님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자리로 돌아왔다.

갑자기 와타나베 양이 “허 상” 하면서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다. 봉투는 한국 중앙 우체국에서 보내 온 것인데, 일본인들은 한자가 없는 한국어를 아

에 읽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일일이 한자와 히라가나로 바꾸어 드려야 했다. 수취인 부담이란 한국어 표시를 일본어로 설명하기가 이리도 어려울 줄은 몰랐다. 그러나 역시 일본인들에게는 한자가 제일 확실하게 통했다. 필자가 수취인 부담을 한자로 써 주니까 ‘아’ 하면서 와타나베 양이 웃으며 올라간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에 보낼 때에도 수취인 부담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카타오카 변호사님께서 그것이 궁금해서 와타나베 비서에게 알아 보라고 시킨 것이었는데, 와타나베 양이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 우체국에 전화하기도 어려웠던 것이었다. 인터넷 검색도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역시 이런 경우에는 전화로 김석순 군에게 한국 우체국에 알아 봐 줄 것을 부탁했고, 돌아온 답변은 국제 우편에선 수취인 부담이란 표시가 적용이 안 되므로 일본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저녁을 같이 하자는 변호사님의 제의를 정중히 사양하고 숙소로 와서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서울에 가기 전에, 바스코 다 가마 식구들에게 일본어 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아직 일본어 자판이 익숙하지 않아 시간이 걸렸다. 내 연락처와 이름을 전해 드리고 가는 것이 이분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았다. 변호사 분들께 받은 명함대로 그분들 메일 주소로 일본어로 작성한 감사메일을 드렸다. 그리고 나에게 잘 대해 주었던 여비서 분들에게도 그간의 찍은 사진을 첨부해서 메일을 드렸다. 이 분들이 혹시라도 한국에 오게 되면 정말 잘 대해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2월23일 화요일, 마지막 실무수습

드디어 일본 로펌 바스코 다 가마에서의 로펌 실무수습이 끝나는 날이었다. 아침에 출근해서 로펌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날이라 했더니 다들 아쉬워하셨다.

카타오카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볼 소송기록을 주셨다. 한국업체인 모 주식회사의 매매대금청구사건이었는데, 상대방 피고 측이 일본회사 두 곳이었다. 원고(한국 주식회사)는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을 제조 판매 수출입하는 회사로서 피고 1로부터 낙뢰보호 시스템의 기계부품을 수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기술이전을 받아 부품을 조립하고 조립한 제품을 다시 피고 1에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1의 기술이전지연으로 인하여 제품의 수출이 늦어지는 한편 피

고 1로부터의 부품수입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수입과 수출의 밸런스가 현저하게 불균형하게 되자, 피고 1 및 피고 2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규모도 더 크고 자금적 신용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피고 2로 수출처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 2는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1도 수출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 2는 원고 주장의 제품 일부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인도받은 바도 없을 뿐더러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서의 존재는 물론 합의한 바도 없다면, 원고 측은 PROFORMA INVOICE에 대한 해석을 잘못 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인보이스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인데, 원고 측은 그에 더해 피고 2가 원고 측 직원과 공모하여 형식적으로만 PROFORMA INVOICE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품을 수출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다. 한국업체인 원고 측 소송대리는 역시 한국 관련 소송을 전담하시는 카타오카 변호사님 및 오카와라 변호사님께서 맡으셨다.

오후에는 선물을 사고 사진도 찍을 예정이어서 오전 중으로 소송기록 읽는 것을 매듭지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짬짬이 덜 바쁘신 분들부터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내가 주로 앉아서 소송기록을 보았던 2층 책상에 매일 차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던 고마운 아사이 양과 히노 행정서사님과 제일 먼저 기념촬영을 했다. 아사이 양과 히노 행정서사님에게는 한국에 와서 사진을 보내 드렸더니 감사답장도 날라 왔고 아직도 메일을 주고 받고 있다. 그간 바쁘셔서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 했던 하시오카 변호사님과 홍일점인 미키 변호사님과도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역시 메일로 다시 인사를 나누었다. 미키 변호사님은 나중에 메일에서, 별로 잘 해 준 것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미안하다는 답장을 해 주셨다. 올 가을에 한국에 오실 예정이라며 맛난 음식 좀 추천해 달라고 메일을 하시곤 한다.

카토 변호사님과 오카와라 변호사님과도 4층 회의실에서 사진을 찍었고 카타오카 변호사님과 오카지 변호사 등 4분의 변호사님과는 저녁에 별도의 술자리가 약속되어 있었다. 2주 동안 외국인인 나에게 너무나 잘 대해 주시면서 스승 노릇을 자원해 주셨던 카타오카 변호사님께서는 정말 약소하지만 경비를 내어 선물을 드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항상 인사를 나누면서 약간의 정이 들어 버린 4분의 여비서 분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처음에는 이름 외우기도 힘들었던 일본 여성 분들이었지만, 메일주소와 함께 나에게 꼭 다시 오라고 일부러 프린트로 출력해서 주는 따뜻한 식구들이었다. 왼쪽부터 오카자키 양, 리에 양, 이노세

양이고 맨 오른쪽이 와타나베 양이다. 첫날 만났을 때 텔런트 이병헌과 같이 차를 마신 적이 있다고 매우 자랑하던 리에 양이 카타오카 변호사님을 풍자한 캐리커처를 들고 사진을 찍자 해서 한바탕 웃음이었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던 와타나베 양의 문 열어줄 때의 “열어 드려요” 하던 그 귀여운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일단 호텔로 돌아 와서 짐을 좀 싸고 옷을 갈아 입은 후에 다시 로펌으로 나갔다. 변호사님들이 회의 때문에 7시가 다 되어서야 내려 오셨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네 분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환송을 위해 저녁식사를 같이 하러 오신 것이었다. 여비서 분들의 “몸 건강하시라”는 인사를 뒤로 하고 로펌을 내려 와서, 변호사분들을 따라 아카사카 미즈케 역 근처의 유명한 스시 집으로 갔다. 음식 이야기를 하기엔 지면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곳은 일본인들이 가기에 매우 비싼 정말 유명하고 오래 된 집이었다. 우리 일행이 들어서자 그날 더 이상 손님을 받을 공간이 없고 그걸로 끝이었다. 손님들은 우리를 포함하여 단 세 팀이었고 손님 각자 옆에는 접시를 치워 주고 식사를 보조하는 직원 분들이 무릎을 꿇고 대기할 정도였다. 일본 전통식의 다이 위에 얹어 주는 스시에는 구경도 못 해 봤던 음식들이 나왔고 한동안 맛볼 수 없는 일본 사케와 맥주에 취할 수 있었다. 일개 로스쿨 학생이 실무수습자로 배우러 왔건만, 이분들은 정말 성의를 다해서 극진히 대우해주셨다. 식사가 끝난 후, 오카와라 변호사님은 바쁜 소송 때문에 아쉬운 작별을 나누어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긴자로 가서 술자리를 가졌다. 서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고급적인 분위기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간 일본어 표현의 미숙이 있었다면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괜찮다고 하셨다. 오히려 올해 여름에 우리 로스쿨생들이 다시 실무수습과 견학을 오느냐고 물으시면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씀하셨다(우리 로스쿨은 약속대로 올해 8월에 2기생 한 명을 다시 실무수습으로 파견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술자리는 파했고 호텔 앞까지 택시로 태워 주신 변호사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2월24일 수요일, 김연아를 보면서 귀국

일본 호텔은 보통 체크 아웃을 오전 10시까지 해야 하는 분위기였다. 잠이 부족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1층 식당에서 마지막 조식을 했다. 한동안 맛보기 힘든 스크램블과 미소시루를 양껏 먹었고, 낮익은 호텔 직원 분들에게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감사인사를 드렸다. 짐을 싸더니 역시 무게가 엄청나다. 끄꿍대면서

짐을 끌고 내려 와서 체크 아웃을 했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아카사카 액션 도큐 호텔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예약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정확히 오전 10시5분에 출발하는 나리타행 리무진이었다. 승객이 나를 포함하여 5명에 불과했는데도 정확히 출발했다. 버스는 작년 여름 연수 때처럼 록본키토오리를 지나서 오다이바 쪽으로 향한다. 창밖에는 레인보우 브릿지와 오다이바의 풍경이 펼쳐졌다. 한동안 도쿄에 지내다 보니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해서인지 이렇게 떠나는 입장이 되고 보니 너무 아쉬웠다. 리무진 버스는 생각보다 더 빨리, 1시간 정도 만에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다. 덕분에 나리타 공항에서 오후 1시50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무척 오래 기다려야 했다.

기내식을 먹을 것이라 생각해서 공항에 있는 식당에서 소바로 점심을 간단히 때웠다. 시간이 많아도 면세점에서 그다지 살 것도 없고 해서 출국수속을 밟은 후에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게이트 근처 대형 텔레비전에서 동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을 중계하고 있었다. 아. 오늘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대결이 드디어 펼쳐지는구나, 그것을 까먹고 있었다.

역시 일본인들의 관심과 응원은 대단했다. 먼저 펼쳐진 아사다 마오의 연기는 매우 훌륭했고, 나리타 공항의 전 일본인들이 기립박수를 하는 분위기였다. 옆에서 지켜 보는 내가 그 분위기에 위축될 정도로 일본인들의 경사스런 분위기 때문에, 김연아가 더 잘 해 주었으면 하는 염원이 가슴 속에서 올라 나왔다. 역시 우리의 김연아 선수는 대단했다. 나중에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보지 못한 정도의 높은 수준의 고난도 연기를 보여 주었고 지켜 보던 일본인들마저 경탄하게 만들어 주었다. 연기가 끝나고 김연아 선수의 우월한 점수가 나오자, 여기저기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울려 나왔다. 이제껏 나리타 공항에 이렇게 한국인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참으로 가슴 벅차고 뿌듯한 순간이었다. 나리타 공항의 수많은 일본인들과 직원들이 한국인들의 외침과 응원을 닦놓고 지켜 볼 뿐이었다. 장하디 장한 김연아 선수의 연기를 보고, ANA항공기에 탑승했다. 오른쪽 자리에는 영국에서 왔다는 백인청년이 앉아 있어서, 오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매우 반가워하면서, 일본의 물가는 런던보다 더 심해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본 생활에 적응함에 있어서 다른 외국인들보다 한국인들이 월등히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국인들은 애초에 한자가 안 되니까 동경의 골목이나 시장에서 뭘 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 특히 일본인들이 영어가 안 되어서 정말

고생했지만, 한국국민들이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생활은 수월했다고 하면서 그런 이유로 서울로 다시 간다고 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나 자신이 조금은 국제화가 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학원을 드나들던 고시생이, 로스쿨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외국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외국인들과 교류를 하게 된 것. 비록 늦었지만 서서히 넓은 사회에 적응하고 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진심으로 학교 측과 교수님들께 감사하고 싶다.

4시35분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영국 친구와는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면서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겨우 2주 정도 만에 돌아 온 한국인데 왠지 낯설었다. 2월경에도 영상20도를 오르내리는 도쿄에서 돌아오니, 한국의 날씨가 왠지 춥고 특히 그날은 정말 흐렸다. 서울로 오는 리무진 안에서 학장님께 돌아왔다는 문자를 드렸더니, 수고했다고 바로 답변을 주셨다. 이렇게 로스쿨 1학년을 마치고 긴장된 마음으로 떠났던 일본 로펌으로의 실무수습은 막을 내렸다.

귀국하고 하루 지나서 청평에서 있었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서 새로운 1학년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 로스쿨과 일본 바스코 다 가마 로펌과의 자매결연을 소개했다. 향후 우리 로스쿨에서 더 많은 후배들이 일본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은 분주했다. 일본에서 약속드린 대로 학장님께 말씀드리어서, 한국법에 대한 자료가 태부족인 바스코 다 가마 로펌으로 법고를 시디를 보내 드렸다. 그 외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기사를 모아서 카타오카 변호사님께 보내 드렸고, 그 중 일부는 카타오카 변호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에도 실리게 되었다.(<http://ameblo.jp/kataoka-tv/>)

그리고 일본에서의 연수가 계기가 되어 일본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한국 법조계 분들과의 인연도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그 인연 덕에 한국 민사소송법학회에 학생 신분으로도 가입이 가능했고, 늦은 나이에 불구하고 김앤장 심화실무수습에 선발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민사소송법 학회에 나갔다가, 게이오대 로스쿨을 마치고 신사법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김미사 양도 알게 되어 친해질 수 있었다. 미사 양은 일본 사법시험을 합격하시고도 일본인으로서의 귀화를 거부하고 평생을 제일한국인의 차별방지를 위해 헌신하신 고 김경득 변호사님의 따님이다. 그리고 로스쿨에서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특성화와 관련하여, 일본어 공부 및 일본법에의 연구도 생각하기 시작했다. 금번 2학기에는 이후동 변호사님께서 일본어로 일본법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그 수업에는 필자와 올 여름에 일본을 다녀 온 후배

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금 욕심을 내어, 니시무라 아사히 또는 모리 하마다와 같은 일본 4대 로펌에서도 경험을 쌓아 보고 싶은 것이 현재의 작은 소망이다.

혹자는 로스쿨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혹자는 로스쿨을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 로스쿨이란 곳이 참으로 많은 것을 주었고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고시생이 외국 로펌에서의 실무수습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필자가 오랜 세월 일본어를 공부해 둔 것을, 사법시험 체제에서 내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친구와 후배들을 통해 전해 듣는 사법연수원의 혹독한 경쟁에 못지않게 로스쿨 내에서의 학점 경쟁도 치열하긴 하지만, 적어도 로스쿨 생활에선 어학을 비롯해 각자의 특수한 스펙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가능했다. 올해 8월에도 필자의 로스쿨 동료들은 뛰어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홍콩에서 열린 국제중재대회에서 서면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필자가 접했던 김앤장의 변호사님들도 필자의 일본 실무수습과 우리 동료들의 국제중재대회 성과에 관심을 표하셨다. 이런 활동에 대해 혹자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꿈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 믿는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미래에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냐는 후배들의 질문에 대해, 나는 무심코 엔터테인먼트 관련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었다. 지난 2월 낯선 땅 도쿄의 한복판에서, 어느 순간 소름이 돋는 느낌으로 그쪽 일을 보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아마도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더 편한 길로 나아갔더라면, 애초에 가진 꿈에는 영원히 다가갈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으실 분들 중 로스쿨 관련 학생 이외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한다. 청춘을 바쳐 공부하시는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로스쿨과 사법시험 출신간의 반목과 긴장이 아닌 법조 동료로서의 화합을 부탁드리고 싶다. 솔직히 원고 작성을 부탁받고 약간의 고민도 했었다. 나 자신이 과거 사시2차 시험장을 드나들었고 한때는 로스쿨 제도에 회의적이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니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음을, 새로이 로스쿨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겸허하게 알리고 싶었다. 특히 앞으로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나 특이 경력을 가진 분들의 로스쿨 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는데, 더욱 경쟁력을 갖춘 젊은 세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한국의 4대 로펌에서 실무수습을 받았던 로스쿨생들은 많지만 아마도 일본 로펌에서 실무수습을 해 본 로스쿨생이 내가 처음이라면, 이 글이 향후 일본 관련 사건에 관심 있는 예비법조인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일본 연수를 준비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헌법재판소의 손형섭 연구관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한국 로스쿨생에게 헌신해 주신 카타오카 노부유키 변호사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바치는 바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았던 한 수험법학에 지친 학생에게 새롭고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해 주신 우리 로스쿨 교수님들과 학우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법조인들께 내가 너무 좋아하는 미스터 칠드런의 노래가사를 바치고 싶다. 希望の数だけ失望は増える(희망의 수만큼 실망은 늘어가지) それでも明日に胸は震える(그래도 내일에 가슴이 설레) 「どんな事が起こるんだろう?」(‘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슴 설레는 내일을 바라보며, 항상 희망을 잃지 말고 정진하시길 기원드린다.